

# 중소기업 활력제고 위해 머리 맞대

## 중기중앙회, 박영선 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자리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회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회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먼저 기술·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 대출 시대·중소기업간 보증료를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을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되었고, 규제 분야에서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 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그 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방역대책부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

통상간담회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규제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범옥 기술이사와 한전 이종환 기술혁신본부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전기품질관리 모바일 서비스 사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 국민안전의 사회적가치 실현

###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과 '모바일 서비스 업무협약' 정기검사·안전정보 제공으로 설비안전성 향상 도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과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과 품질관리 모바일 서비스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4일,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범옥 기술이사와 한전 이종환 기술혁신본부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전기품질관리 모바일 서비스 사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전기품질관리 모바일 서비스'는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주는 과부하, 고조파, 역률 등의 정보를 고객이나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력사용량과 월별 전기요금, 위치정보 등도 제공하며 고객들이 전기설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특고압 수전설비 전기품질관리'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기품질관리 서비스의 확산 △정기검사 등 안전관련 공지 서비스 제공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전기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이범옥 기술이사는 "5G시대 디지털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전기안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며, "이번 한전과의 협약이 수요자 중심·국민안전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소액 저축으로 모으는 재미 극대화 "장기근속자의 주거 부담 덜어드립니다"

### 전북은행, 마이플랜 통장·적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JB 마이플랜 통장'과 소액 여유자금을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JB 마이플랜 적금'을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JB 마이플랜 통장은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설정하고 잔액 유지 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가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파킹플랜 구간을 선택하여 매일 최종잔액 기준으로 ▲파킹플랜A 100만원 연 1.10%, ▲파킹플랜B 300만원 연 1.20%, ▲파킹플랜C 500만원 연 1.30, ▲파킹플랜D 1,000만원 연 1.50%, ▲파킹플랜 설정금액 초과 연 0.20%, ▲파킹플랜 설정금액 미만 연 0.10% 까지 금리가 적용되어 매일 제 4요일 다음날 이자를 지급한다. /김윤상 기자

JB 마이플랜 적금은 매일, 매주, 매월 소액 저축을 통해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으는 재미를 극대화시킨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2년이며 금리는 최저 연 1.40%에서 최고 연 2.45%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장기적에 지친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JB 마이플랜 통장을 선보이게 되었고, 2030세대에게 게임처럼 쉽고 재미있게 소액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JB 마이플랜적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전북은행 스마트뱅킹 또는 전북은행 모바일 Web을 통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장기근속자 우선 추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1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10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근절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과 함께 24일 전주시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캠페인은 전북농협 상호금융 업무지원단·마케팅지원단, 전주원예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전주 시민에게 안내장을 배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와 대포통장 피해예방을 설명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농협은 9월을 '대포통장 신규

발급 제로'의 달로 정하고 전북 농·축협 317개소가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경찰서,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을 1개월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단이 조직 내 양방향 소통과 토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인사 운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결과이다.

공단은 그간 대립적 관계였던 노사가 합심으로 노사공동혁신위원회를 구성, 본회의 3회, 분과회의 12회를 실시함으로써 공단 구성원의 오랜 숙

원이었던 3급 승진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며, 전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사제도개선추진단 운영을 통해 휴직기간에 대한 근무평정점 부여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한 인사혁신을 실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양질의 연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부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선도적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JB금융그룹, 캄보디아 현지화 마케팅 강화

JB금융그룹(175330, 회장 김기홍) 손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이 캄보디아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PPCBank는 최근 캄보디아 시애틀 지역에 한글을 적용한 브랜드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PPCBank 브랜드 가치를 현지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옥외광고 캠페인에는 PPCBank 브랜드를 중심으로 '어서오십시오', '전북은행' 등을 하단에 한글로 표기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광고는 지난 2016년 전북은행의 자회사로 인수 되어 현지화에 성공, 매년 두자리 수 성장세를기록 중인 PPCBank가 모회사인 전북은행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라

고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PPCBank는 최근 캄보디아 태권도 선수단의 한국 전지훈련 일체를 지원하기로했다. 이미 캄보디아 출신 프로당구선수 프롱 피아비를 명예 홍보대사로 선정,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린 PPCBank는 캄보디아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찾아 스포츠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전북은행 자회사로 JB금융그룹의 가족이 된 PPCBank는 전북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캄보디아 금융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다. 전체 직원 중 98%는 현지인으로 전체 19곳의 영업점에서 리테일 영업을 중심으로 중소, 중견기업 및 중산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